

나주시, 세계유산 추진 고분군 관리 부실

풀베기 작업 곳곳 제외돼 잡초 무성하고 위험한 물웅덩이 방치 관광객·어린이 탐방객들 원성...안내지도 없어 발길 돌리기도

전라남도과 나주시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고분군 관리가 부실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라남도과 나주시는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묘로 평가받는 반남 고분군과 복암리 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워크숍 및 학술대회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주시 고분군이 세계적으로 독창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과 달리 고분 관리의 일반인 묘 관리보다 허술해 관광객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반남면 고분군과 다시면 복암리 고분군은 최근까지 사할 키 높이에 잡풀로 뒤덮여 관광객이 접근할 수 없이 아산처럼 관리되고 있다.

이때쯤이면 개인들도 별초를 두 번쯤 끝난 상태지만 세계적인 문화재를 지금까지 방치한 것이다.

시는 지난달 3일부터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예산 2000여만원을 책정하고 S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고분군 풀베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에서 발주를 늦게 해 풀이 너무 자라서 작업이 더디고, 계약 당시 6만 6466㎡라던 작업면적도 다시 측량해 보니 8만8000㎡로 나타나 시와 업체간 갈등이 벌어지면서 풀베기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 담당자와 S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풀베기 작업은 끝나고 뒷마무리 작업만 남았다고 하는데 고분군 곳곳이 풀베기 작업에서 누락되어 고분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 실제로 본보 기자가 고분군 현장을 찾았을 때 풀베기 뿐만 아니라 고분군 관리가 엉망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주국립공원 맞은편 덕산리 고분군은 풀베기 작업이 끝났는데 고분군 입구와 탐방로는 여전히 잡풀이 무성했다.

또 고분군에 유일한 그늘막으로 단체 유치원생들의 소풍장소와 가족들 텐트 장소로 인기가 있다는 소나무숲도 잡풀들로 접근할 수 없었다.

시의 고분군 관리 허술함은 이뿐만이 아니다. 고분 몇 곳은 비석이 쓰러질 듯 기울어 있고, 대안리 고분은 약 길이 12m 주구에 1m 넘게 물이 고여있어서 견학하는 어린이들과 관광객들이 자칫 사고로 이어지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또 나주국립박물관과 반남면 고분군 안내소에 고분을 찾아갈 수 있는 고분 안내지도가 없어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었다. 반남 고분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도가 없으면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시의 안전한 고분군 관리 행정은 예산집행을 봐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고분군 상사관리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이 책정되어 ▲2016년 1억3400만원 ▲2017년 1억3076만원 ▲2018년 9900만원 ▲2019년 2110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시는 해마다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2016년 6270만원 ▲2017년 2700만원 ▲2018년 2000만원을 불용금으로 반납했다.

만약 시가 반납한 국비로 고분군에 잔디를 식재하고 비석 세우기와 풀 제거작업을 성실하게 실시해 왔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해마다 국비 보조금이 줄어들어 고분군을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크다”며 보조금 사용내역과 동떨어진 해명을 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bson@kwangju.co.kr



나주국립박물관 앞 덕산리 고분군 입구와 탐방로가 잡풀이 무성한 채 풀베기 작업이 끝나 버렸다.



반남면 대안리 3호 고분은 12m 되는 주구에 1m 넘게 물이 고여 견학 온 어린이나 관광객들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줄이은 하계 전지훈련...달아오른 나주

나주시가 하계 전지훈련을 위해 모여든 스포츠 선수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나주시는 4일 비수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계 전지훈련 유치 활동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달 25일 중국 펜싱팀을 시작으로 육상, 씨름, 사격 등 4개 종목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펜싱팀은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진행한 마케팅 수범사례로 꼽힌다. 중국 선수단은 국내 17개 팀과의 기량 향상을 위한 친선경기도 펼칠 예정이다.

또 이달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육상 중·장거리 국가대표 후보선수 및 전국 중·고교 우수 10개 팀, 200여명이 전지훈련을 앞두고 있다.

씨름은 구례 군정을 비롯한 10개 팀이 이달 중순부터 10일간, 사격은 국가대표 후보팀 및 중·고교 30팀, 300명이 8월 중순까지 전지훈련에 임한다.

시는 선수 수송 차량, 스토브리그 개최, 참여 지도자 인센티브, 전지훈련 팀 추어 만들기 행사 등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전지훈련팀을 맞이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올 연말 준공을 앞둔 육상 보조경기장 및 전천후 실내 경기장을 비롯해 종합스포츠파크 운동장, 금성산 산악 육상경기장 등 우수한 시설 인프라를 활용해 전지훈련 유치 정례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bson@

총채벌레 번식 증가에 ‘고추 갈라병’ 감염 급증

올봄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의 영향으로 농작물 바이러스 매개충인 총채벌레의 번식이 증가하면서 최근 고추 재배단지 중심에서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고추 바이러스 갈라병’ (사진)으로 불리는 ‘토마토반점 위조 바이러스(TSWV)’가 확산하면서 고추 재배 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고추 갈라병은 치료가 불가능하고 전염 속도가 빨라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매개충인 총채벌레를 조기에 방제하면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발생 초기에 방제작업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체 재배단지로 전염될 위험성이 높아 농가의 선제적 방제가 중요시 되고 있다.

이 병은 고추, 토마토 등 1200여 종의



식물에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고추는 새순이 괴사되거나 잎이 노랗게 변질되고, 고추열매에 얼룩덜룩한 반점이 생겨 상품성을 잃게 된다. 병이 심해지면 식물 전체가 말라 죽게 된다.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총채벌레 등목약제를 4~5일 간격으로 2~3회 주기적으로 살포하고, 총채벌레 밀도를 낮추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제 방법”이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희망에너지플러스 사업’ 전기차 전달

나주시·전력거래소 등 송월동 지역아동센터 후원

나주시는 ‘희망에너지플러스’ 사업 일환으로 송월동 지역아동센터에 전기자동차를 후원했다.

나주시는 최근 한국전력거래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최영철)와 함께 추진하는 ‘희망에너지플러스’ 사업을 통해 송월동 지역아동센터에 전기자동차 1대를 전달했다. (사진)

희망에너지플러스사업은 지난해 9월 나주시와 전력거래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가 체결한 ‘행복 나눔 7대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이다.

전력거래소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나주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과 연계해 아동복지시설의 노후 된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 지원한다.

조영탁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전기차 이용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시설의 에너지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관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분야의 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소외계층에게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온정 넘치는 지역사회



구원에 동참해주시는 전력거래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임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따듯한 복지 실천과 복지시설 편의개선 지원에 힘써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bson@kwangju.co.kr

아름다운나주를 담으세요...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

나주시는 나주 관광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전국 단위 ‘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나주시는 4일 국내·외 홍보 콘텐츠 확보를 위해 전국 단위 ‘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오는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1인 당 최대 3점까지 출품 가능하며, 2019년 관광종합계획에서 지정된 나주시 주요 관광자원 40개소를 대상으로 한 사진을 출품하면 된다.

작품은 2018년 11월 이후 찍은 사진에 한하여 출품 가능하며, 합성·조작·변형된 사진, 표절 및 모방작, 타인 대리 출품작, 타 공모전 입상작 등은 심사 대상

에서 제외된다.

공모전 대상지는 금성산, 산림자연원, 구소, 드림강(솔밭유원지), 양암비위, 한수재, 나주호, 우습재, 영산강 유채꽃밭 등 전혜의 자연경관을 비롯해 나주읍성 4대문, 금성관, 목사내아, 나주향교, 정렬사, 다보사, 불회사 등 역사 문화재(고찰)가 포함됐다.

공모전 총 상금은 1000만원으로 최우수상 1명(200만 원), 우수상 2명(각 100만 원), 장려상 4명(각 50만 원), 입선 40명(각 10만 원) 등 총 47점을 선정해 11월 20일 나주시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bson@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증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